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석사 학위논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elf-esteem in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진

박혜진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 혜 립 인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다문화가정	5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5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 및 현황	10
2. 부모-자녀 관계	12
1) 부모-자녀관계의 개념 및 요인	12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	13
3. 자아존중감	14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요인	14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15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7
1) 의사소통	17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8
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9

Ⅲ.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의 모형과 변인의 측정	21
1) 연구의 모형	21
2) 변인의 측정	22
3. 분석방법	25
Ⅳ. 연구 결과	26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2. 주요 변인 간의 관계	28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관계	29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 관계	30
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 감 관계	31
3. 매개효과 모형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32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32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33
Ⅴ. 결론 및 제언	37
1. 결론	37
2. 제언	43
참고문헌	44
부록	53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다문화가정의 범위	6
<표 2> 국적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7
<표 3> 시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7
<표 4>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추이	8
<표 5>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9
<표 6> 다문화가정 자녀 유형	10
<표 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11
<표 8>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척도 문항구성	23
<표 9> 다문화가정 자녀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구성	23
<표 10>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척도 문항구성	24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1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28
<표 1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29
<표 14>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30
<표 15>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31
<표 16>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2
<표 17>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33
<표 18>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35

그림 목 차

[그림 1] 다문화혼인건수 및 전체혼인 중 다문화비중추이	8
[그림 2]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추이	9
[그림 3]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11
[그림 4] 연구모형	21
[그림 5] 연구모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①	34
[그림 6] 연구모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②	36

국 문 초 록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아동가정복지학과 전공 박혜진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세 변수 간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향상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4, 5, 6학년 118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척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척도’, ‘의사소통 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아버지-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개방형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자녀 관계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문제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는 부모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받으

며,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자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수는 약 31만 가구로, 점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변화되고 있다(통계청, 2018). 다문화 혼인 건수는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향후 2년 내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최근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는 교육, 문화, 지역사회 및 전 분야에 걸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김혜련, 2013).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정환경 내에서 외국인 부모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중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부모에 의해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일부가 된다(류원, 2018).

두 문화에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자녀들은 필요한 생활기술을 획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증진되며 차별 및 편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적응에 실패한 경우에는 외모 차이, 언어 문제, 심리적 부적응, 또래관계, 소외 등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환경적인 취약성을 가지므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외모, 언어 등의 문제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고 또래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배척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남민숙, 2006; 박미단,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차별받거나 편견을 당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국가로서 단일문화와 단일 혈통을 강조하며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문화와 언어가 다르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선행연구(남윤주, 2009)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과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자아정체성 혼란에 따라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는 자아존중감 하락은 학교 부적응 현상과 따돌림의 문제로 이루어지며 결국 사회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배장오·진서현, 2015).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금주, 2008; 권민균 외, 2012; 임수경·이형실, 2007). 자아존중감은 일반 아동·청소년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김기예·이소은, 2005; 김문혜, 1999), 자아존중감은 일반 아동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주희·남지숙, 2010; 정하성 외, 2007; 심우엽, 2009; 오성배, 2007; 박준성·정태연, 2008; 조영달, 2006).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적응과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하거나(유빛나·박경옥·최진영, 2010),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교적응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박수정·최연실, 2009; 박영호, 2012; 손혜진, 2010; 장인실·김명희, 2011; 조동신, 2010). 또는 학교적응이나 사회적 지지의 영향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요인으로 살펴보고 있다(이지애, 2008; 황성동·박은혜,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주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경우 부모나 형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다(김경원, 2002; 김지연, 2010; 박중은, 2007; 송설희, 1994; 염미화, 2008). 즉,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풍부한 사랑과 격려가 있을 때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박중은, 2007; 송설희, 1994).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자아수용과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수용은 부모 자신이 지각한 양육태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생각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고혜진, 2003, 이애옥, 2008).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서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며,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1-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1-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1-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나타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국제결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제결혼이라는 말 대신 다문화가정 또는 이중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강가정시민연대(2004)가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국제결혼가정, 혼혈인 가정 등 차별성을 지닌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인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인권적인 용어라고 제안하였으며, 이로부터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김나예, 2012; 홍정미, 2009).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을 근거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혹은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정을 칭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은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민 가정을 포괄하여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은 노동을 위해 이주한 여성과 남성이 혼인한 가정, 외국인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나라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서 일하며 형성된 가정이 포함된다. 새터민 가정은 북한 출신으로 남한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받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주민의 가정으로 새로운 터전에 정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은주,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구성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다문화가정의 범위

분류	범위
국제결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
기타 이주민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자녀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구성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과 귀화자가 25%, 귀화자와 귀화자가 15%, 한국인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인 여성이 81.5%이고, 배우자 76.8%가 한국 출신 남편으로(정해숙 외, 2016)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및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문소림, 2015).

2018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적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58,706명으로 중국이며 다음으로 42,460명으로 베트남이 차지하였으며 13,738명으로 일본이 그 뒤를 따른다. 국제결혼 건수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132,391명으로 83.2%의 비율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12,710명의 16.8%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적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¹⁾	한국 계	베트 남	일본	필리 핀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9,206	58,706	21,894	42,460	13,738	11,836	4,496	4,411	2,438	21,121
	100%	36.9%		26.7%	8.6%	7.4%	2.8%	2.8%	1.5%	13.3%
남자	26,815	12,710	7,523	2,182	1,231	419	217	96	147	9,813
	16.8%									
여자	132,391	45,996	14,371	40,278	12,507	11,417	4,279	4,315	2,291	11,308
	83.2%									

※ 출처: 법무부(2018). 국적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표 3>을 보면 경기도에 45,182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27,561명으로 그 다음 순위이고, 경남이 10,280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시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²⁾	경북	부산	전남
157,418	45,182	27,561	10,280	10,272	9,126	7,989	7,279	6,606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6,020	5,379	5,198	3,640	3,386	3,511	3,372	2,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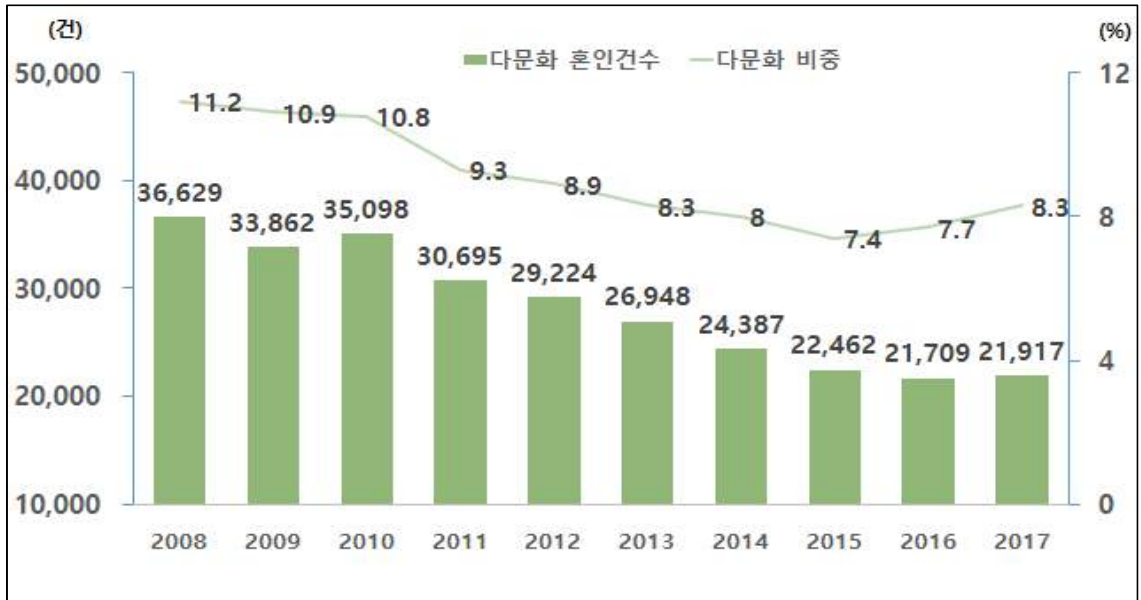
※ 출처: 법무부(2018). 시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다문화혼인은 21,917건으로 전년보다 1.0%(20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0.6%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1) 한국계 포함

2) 세종특별자치시 742명 포함

<그림 1> 다문화혼인건수 및 전체혼인 중 다문화비중추이



※ 출처: 통계청(2018),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4>의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3년 150,865명에서 2014년 150,994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2015년 151,608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2016년 152,374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2017년 155,45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2018년 159,20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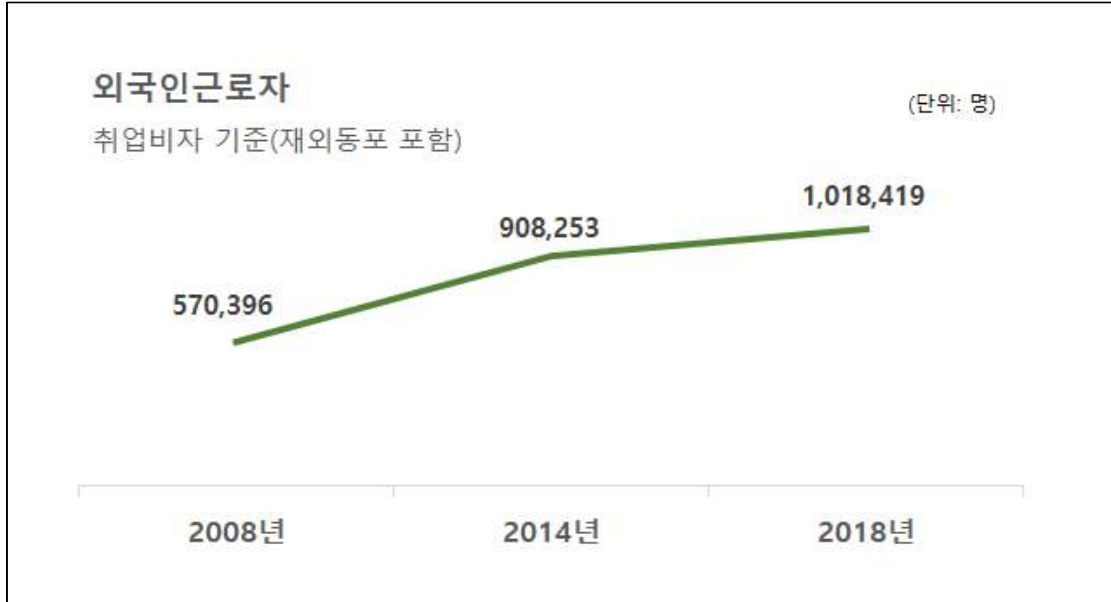
<표 4>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명)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전년대비증감률	1.6%	0.1%	0.2%	0.5%	2.0%	2.4%

※ 출처: 법무부(2018),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추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무부(2018)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08년 570,396명에서 2018년 1,018,41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추이



※ 출처: 법무부(2018),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추이

유학생 가정은 학업이나 한국어 연수, 외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가정을 의미하는데, <표 5>를 보면 2013년 81,847명에서 2016년 115,927명, 2017년 135,087명, 2018년 160,67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160,671
유학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102,690
한국어연수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57,971
외국어연구	-	15	6	14	4	10
전년대비 증감률	-	5.6%	11.5%	20.3%	16.5%	18.9%

※ 출처: 법무부(2018),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 및 현황

<표 6>과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모든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하고자 한다.

<표 6> 다문화가정 자녀 유형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외국인가정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출처: 교육부(2018).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은 2016년 기준 6세 이하 56%, 7~12세 28%, 13세 이상이 16%였다. 초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양적인 증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8).

<표 7>은 행정안전부(2018)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령별 현황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2015년도의 197,550명, 2016년도의 201,333명에서 2017년도의 222,455명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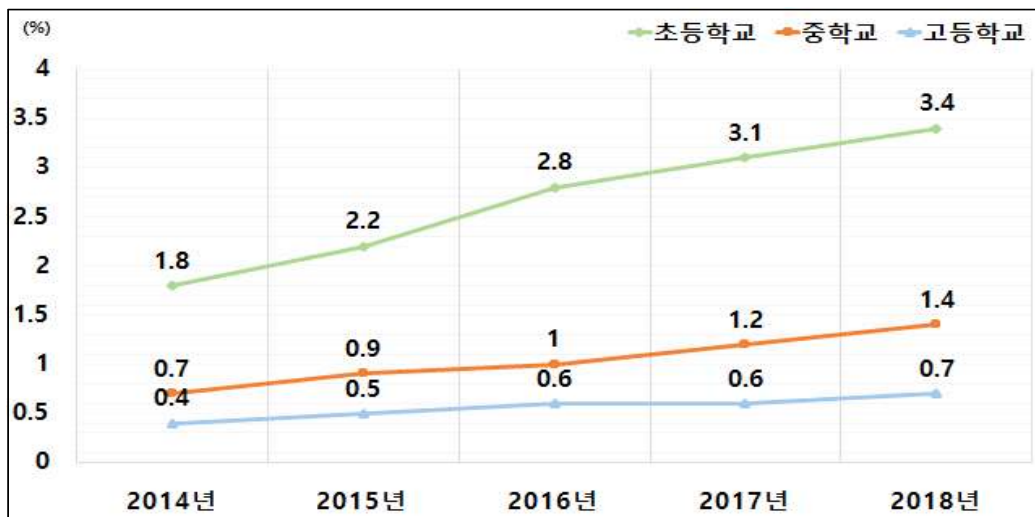
<표 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연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출처: 행정안전부(2018).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그림 3>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출처: 교육부(2018).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그림 3>을 보면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2%로 전년(1.9%) 대비 0.3%p 상승하였고, 학교급별 다문화자녀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3.4%로 전년(3.1%) 대비 0.3%p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1.4%로 전년(1.2%) 대비 0.2%p 상승하였고, 고등학교는 0.7%로 전년(0.6%) 대비 0.1%p 상승하였다.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80.4%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수)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80.4%(98,26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 12.8%(15,629명), 국제결혼 가정(중도입국) 6.8%(8,320명) 순이다.

2. 부모-자녀 관계

1) 부모-자녀 관계의 개념 및 요인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 공동체이며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장영애 외, 2008).

청소년기에 가정환경은 성인기로의 과정을 준비하며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기반으로 작용하며 가정환경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Dubois et al, 1994). 특히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김순옥 외, 2008). 청소년기 자녀가 겪는 가정불화, 애정결핍, 가족 간 의사소통 결여,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의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협하고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강유진·문재우, 2005; 조은정·이혜경, 2007).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가진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갖게 된다(박현선, 1998).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따뜻함, 애정, 수용 등을 의미한다(Parker et al., 1979).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외부환경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Stepney 외 (2015)의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

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 부모와의 유대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ygotsky(1978)가 주장한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착을 확립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화가 원활하며 자녀의 태도나 정체성, 긍정적인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인 부모가 한국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고립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다(이순비, 2010).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경우 한국어를 습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하며, 한국어를 습득하였다도 한국에서 자란 자녀의 미묘한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정은희, 2004).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부모-자녀 간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한혜성, 2012).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안지현, 2014).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였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며, 다문화가정 자녀가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정지영, 2008).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변인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윤난호 외, 2018). 이처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 다양한 관계에도 영향

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신효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한국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적성장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곽금주(2008)의 연구에서 일반가정과 비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였고 자녀에 대한 지도가 소극적이고 자녀에게 강압적이었다. 또한 정서적인 표현과 상호작용 활동에 있어서도 일반가정에 비해 참여도가 낮게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신혜정, 2007; 정하성·우룡, 2007).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요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써, 자아개념이 자아에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존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자아존중감이다(Simmons & Blyth, 1987).

Erikson(1980)은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요소를 자아존중감이라 하였고(신혜정, 2007),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심리적·정서적·건강에 중심 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박솔지, 2010).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평가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과 성격, 적응능력 등 전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본다. 즉 자아존중

감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적이고 자신의 특성들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수용과 자기존중을 가지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순희·허만세, 2014).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불만족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Coopersmith(1967)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써,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이순희·허만세, 2014). Coopersmith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있는 타인은 부모나 친구, 교사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과 수용여부에 따라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

Harter(1999)는 보다 세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깊이 관련되는 관계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지각하는지를 말해주는 자기가치감은 관계적인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서로 다른 관계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특성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주관적 평가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여 어머니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울 것인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매진할 것인지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에 부모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며, 자아개념 형성에 방해가 된다(박미경, 엄정애, 2007; 왕한석 외, 2005). 이는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며 자신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경선, 2012).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과 우울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들 보다 우울에 대해서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남윤주, 2009).

그러나 다문화가정 중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어 사용 수준이나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좋으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사용량과 질에 따라 어느 정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가족환경이라 하였으며, 이에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부모는 학교 교사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부모의 수용, 관심, 지지, 참여, 온정성 등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에 결부되어 있다(고병채, 1991; Coopersmith, 196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있고(정현영, 2006; 신혜정, 2007; 박은정, 2008),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송선진, 2007),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 연구(남윤주, 2009),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김미선, 2009)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효과를 제시한다.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공통’ 또는 ‘공유’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communi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징적인 상호교류과정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반향적인 과정이다. 유기체들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Galvin & Brommel, 1986)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Satir, 1983).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의사소통의 정의를 살펴보면, Lewis는 의사소통이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를 갖게 하는 메시지, 아이디어, 태도 등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공통의 이해를 강조하였다(고영규, 1993). Knezevich(1962)는 의사소통을 4가지로 강조하였다. 첫째로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태도, 생각, 정보를 교환하는 것, 둘째로 이념을 교환하는 것, 셋째로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 넷째로 사실, 생각, 느낌을 주고 받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조금옥, 2005).

Myers(1986)는 첫째로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며, 둘째로 의사소통은 자극과 반응, 송신자와 수신자, 메시지, 기호화 과정, 기호해독과정, 되돌림, 자각, 자기표현 등으로 구성된 인간관계의 매개체이고, 셋째로 의사소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계속되고, 넷째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섯째로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사상, 느낌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여섯째로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상수(2001)는 의사소통을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 또는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피차 상호간에 느껴,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유미(1996)는 의사소통을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인간사회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전달과정이며 여러 상호작용들을 매개로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의사소통은 언어나 문서화된 보고 및 지시뿐만 아니라 감정의 표시와 묵시적 행위 그리고 표정 등의 모든 행위의 매개체를 통한 의미 또는 정보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전달은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똑같은 내용이 수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도가 잘 전달될 때 완벽해지는 것이다(정유미, 1996; 조금옥, 2005; 최영자, 1999).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인간의 사회화 작용에 있어 필수적이며, 최초의 사회화 작용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 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는 최초의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s)라 할 수 있다(김경원, 2002).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Thomas, 1977). 인간은 태어나면서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가정 내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성장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 의사결정, 느낌이나 정보의 교환, 자녀의 정서적 발달, 가족원간의 이해, 유대감과 가족의 응집력 형성, 갈등의 처리 등의 여러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집단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양영미, 2003; 염미화, 2008).

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확립하며 자신감과 안정감도 갖게 된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역할 조망과 자아존중감 형성, 도덕성 발달, 그리고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염미화, 2008; 윤미애, 2003).

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의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정보, 지식, 경험, 사상, 신념, 감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교호작용적인 과정이다(장해순·강태완,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관계를 강화 또는 악화시키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태도나 생각 등을 전달시켜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Thomas, 1977). 다문화가정 안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및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서 잦은 신조어의 출현과 세대 간 차이 등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는 원인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은 부모-자녀간 문화 및 언어차이, 부부사이간의 문화적 차이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김인창, 2009; 손혜진, 2010; 신혜정, 2007). 이는 부모-자녀 간 문화 및 언어차이, 부부사이 간 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어가 서툰 부모 중에는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이 한국에 들어와 가족문화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혜성, 2012; 윤향희, 2014). 이 때 한국어를 잘못 습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문법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음운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오류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 환경으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정은희, 2004). 부모의 언어능력 부족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혼란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위기를 맞게 되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경란, 2007; 박미단, 2009;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가정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부모는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강압적인 소통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거나 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서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도 일반가정보다 낮다(곽금주, 2008).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한국어 능력 차이,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관계적·심리적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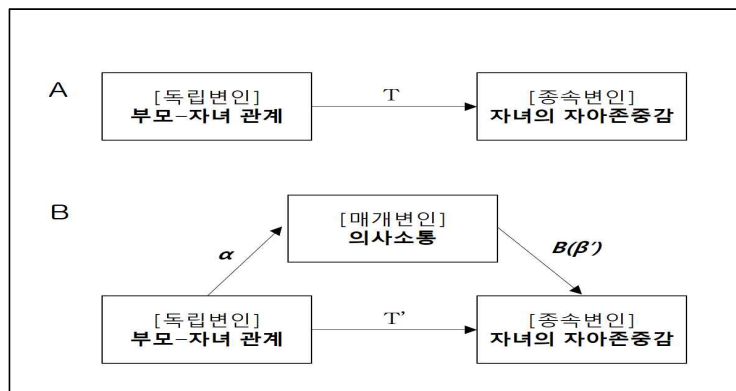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U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다문화가정 아동 153명에게 배부하여 총 128명의 다문화가정 아동들로부터 회수되어 83.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에서 체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118명의 응답지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시기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으로 이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여 표현할 줄 알게 되고 외부 환경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또한 자아존중감 형성의 밑거름이 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모형과 변인의 측정

1) 연구의 모형

<그림 4> 연구모형



모형A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회귀계수 T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이며, 총 효과 또는 전체 효과를 의미한다. 모형B는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회귀계수 α 의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수에 회귀계수 β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β '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이다). 이 때 모형 A에서의 독립변인 효과 T는 매개변인을 통제된 후에 T'로 감소하며,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로 직접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이르는 회귀계수 α , β 의 곱이 매개효과이며,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모형을 통해 구해진 독립변인의 전체효과(total effect)는 $T=T'+\alpha\beta$ 이다. 이 값은 전체효과 T에서 직접효과 T'를 뺀 값과 동일하다. 즉, $\alpha\beta=T-T'$ 인데, 이것은 Mackinnon 그리고 Dwyer(1993)가 증명하였다. 만약 다음과 같은 모형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형성을 하는 데에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선정하였으며,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척도(최인재, 2007)’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모두 1에서 5까지(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마다 부와 모로 구분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4개의 하위요인인 친밀(7문항), 헌신(6문항), 존경(4문항), 엄격(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

계 척도 문항구성은 <표 8>와 같다.

<표 8>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척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친밀	1, 2, 6, 9, 11, 15, 19	7	.980
현신	3, 7, 10, 12, 16, 20	6	.955
존경	4, 8, 13, 17	4	.942
엄격	5, 14, 18	3	.969
전체		20	

(2) 종속변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9>과 같다.

<표 9> 다문화가정 자녀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긍정적	1, 2, 4, 6, 7	5	.966
부정적	3, 5, 8, 9, 10	5	.976
전체		10	

(3) 매개변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문항들은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였으며, 민혜영(1990)이 번안하였고, 이를 백승미(2003)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척도는 두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요인은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요인은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유형, 문제형 의사소통유형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의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개방형 점수가 높으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이고, 문제형 점수가 높으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척도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988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976
전체		20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종속변인인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그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같이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남자 57명 여자 61명으로 분포되었고, 학력은 4학년 27명, 5학년 54명, 6학년 37명으로 분포되었다. 부출신국은 모두 한국 118명이었고, 모출신국은 필리핀 25명, 중국 35명, 베트남 32명, 일본 12명, 캄보디아 14명으로 분포되었다.

부연령은 20~29세 28명, 30~39세 69명, 40~49 18명으로 분포되었고, 모연령은 20~29세 28명, 30~39세 69명, 40~49 18명, 50세 이상 3명으로 분포되었다. 부학력은 중졸이하 19명, 고졸 45명, 전문대졸 22명, 대졸이상 32명으로 분포되었으며, 모학력은 중졸이하 24명, 고졸 75명, 전문대졸 3명, 대졸이상 16명으로 분포되었다.

모대화유형은 한국어만 65명, 한국어 대부분+모국어 약간 34명, 한국어+모국어 반반 11명, 한국어 약간+모국어 대부분 6명, 모국어로만 2명으로 분포되었고, 부대화유형은 한국어만 111명, 한국어 대부분+모국어 약간 7명으로 분포되었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7	48.3
	여자	61	51.7
학력	4학년	27	22.9
	5학년	54	45.8
	6학년	37	31.4
부출신국	한국	118	100.0
모출신국	필리핀	25	21.2
	중국	35	29.7
	베트남	32	27.1
	일본	12	10.2
	캄보디아	14	11.9
부연령	20~29세	28	23.7
	30~39세	69	58.5
	40~49세	18	15.3
모연령	20~29세	28	23.7
	30~39세	69	58.5
	40~49세	18	15.3
	50세 이상	3	2.5
부학력	중졸이하	19	16.1
	고졸	45	38.1
	전문대졸	22	18.6
	대졸이상	32	27.1
모학력	중졸이하	24	20.3
	고졸	75	63.6
	전문대졸	3	2.5
	대졸이상	16	13.6
모대화유형	한국어만	65	55.1
	한국어 대부분+모국어 약간	34	28.8
	한국어+모국어 반반	11	9.3
	한국어 약간+모국어 대부분	6	5.1
	모국어로만	2	1.7
부대화유형	한국어만	111	94.1
	한국어 대부분+모국어 약간	7	5.9
합계		118	100

2. 주요 변인 간의 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종속변인인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매개변인인 의사소통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부-자녀관계’는 ‘의사소통’,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각각 상관계수 .709($p<.01$), .942($p<.01$)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자녀관계’는 ‘의사소통’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각각 상관계수 .689($p<.01$), .974($p<.01$)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부-자녀관계’는 ‘모-자녀관계’와 .938($p<.01$)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 .721($p<.01$)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다문화가정 부-자녀 관계	1			
다문화가정 모-자녀 관계	.938**	1		
의사소통	.709**	.689**	1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942**	.974**	.721**	1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아버지-자녀 관계	.282**	-.268**
어머니-자녀 관계	.254**	-.197**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 관계는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r=.282, p<.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r=-.268, p<.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 관계도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r=.254, p<.00$)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r=-.197, p<.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는 자신을 구성하는 특성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는 자기 자신을 불만족해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형성된다.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아버지-자녀 관계	.219**	-.307**
어머니-자녀 관계	.187**	-.311**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의 관계는 부모-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r=.219,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r=-.307, p<.0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의 관계도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r=.187,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r=-.311, p<.0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와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난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자녀 간 원활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개방형	.139**	.186**
	문제형	-.247**	-.261**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지각할 때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으로 지각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질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으로 이루어질 때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r=.139$, $p<.001$)일 때 정적상관이,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r=-.247$, $p<.001$)일 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지각할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기수용과 자기존중을 가지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3. 매개효과 모형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설명력($R^2=95.5\%$)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는 10이하를 보여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 관계는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t=4.156$, $p<.001$).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 관계는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도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t=13.026$, $p<.001$).

<표 16>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차	VIF
	β	표준오차	B			
(상수)	-2.780	.128		-21.664***		
다문화가정 부-자녀	.436	.105	.239	4.156***	.365	2.743
다문화가정 모-자녀	1.336	.103	.749	13.026***	.149	6.714
$R^2=.955$, $F=1208.310$ ***						

* $p<.05$, ** $p<.01$, *** $p<.001$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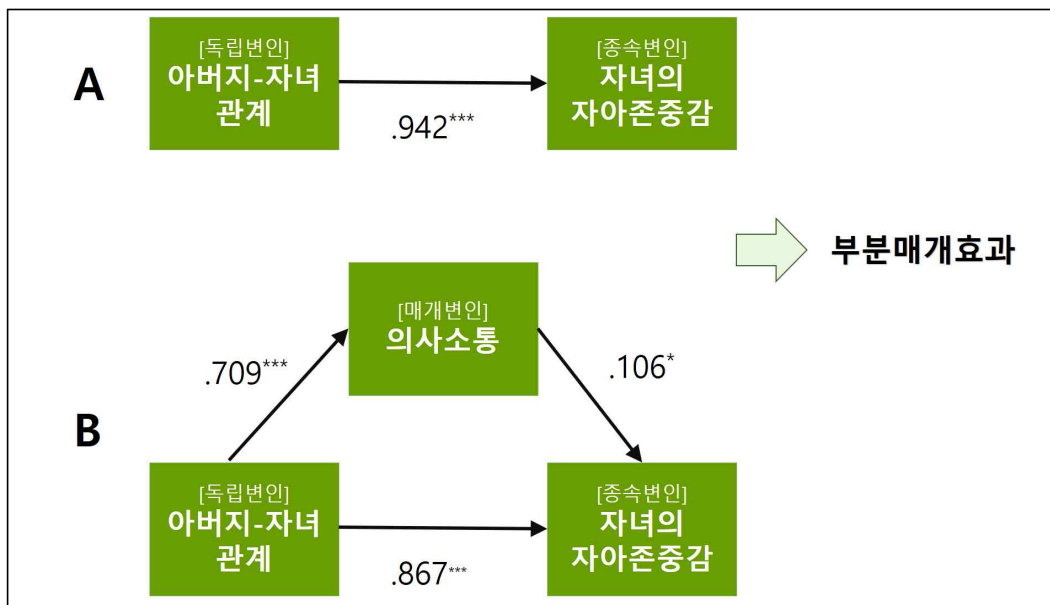
(1) 부-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매개를 통한 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7>, <그림 5>와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beta=.70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942,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106, p<.05$)이 유의하였고,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	종속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β	표준오차	계수 베타	
1단계	부-자녀관계	의사소통	.147	.014	.709***	10.829
			$R^2=.503, F=117.258^{***}$			
2단계	부-자녀관계	자녀의 자아존중감	1.718	.057	.942***	30.259
			$R^2=.888, F=915.630^{***}$			
3단계	부-자녀관계 의사소통	자녀의 자아존중감	1.581	.079	.867***	20.058
			.927	.379	.106*	2.446
			$R^2=.893, F=480.468^{***}$			

<그림 5> 연구모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①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2단계에서의 베타값($\beta=.942$) 보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3단계에서의 베타값($\beta=.867$)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투입하기 전에 아버지-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아버지-자녀관계와 함께 투입되면서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자녀관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매개를 통한 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8>, <그림 6>과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력($\beta=.68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974,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094, p<.01$)이 유의하였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8> 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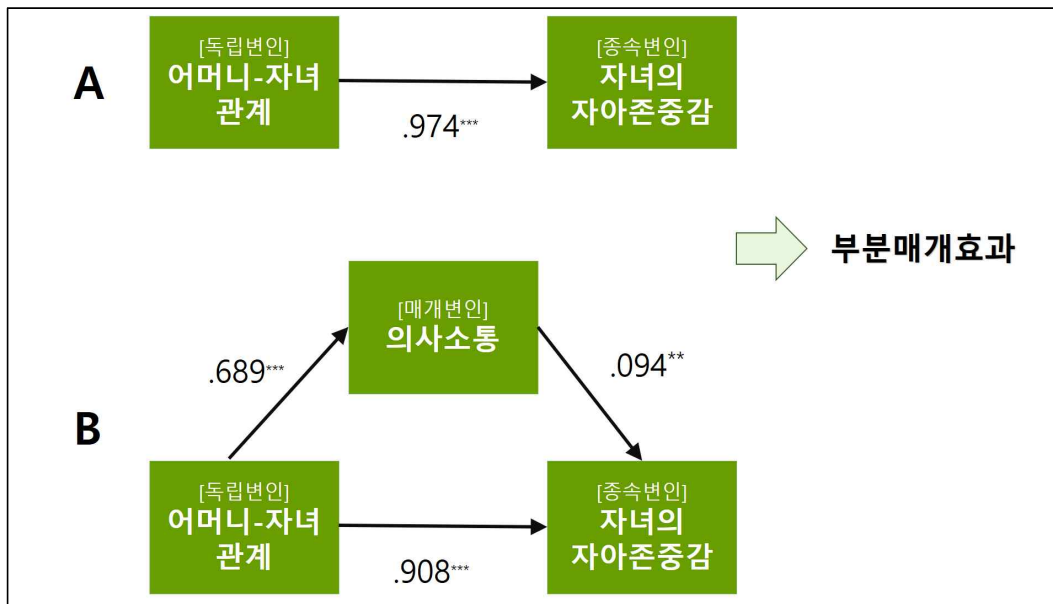
단계	독립	종속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β	표준오차	계수 베타	
1단계	모-자녀관계	의사소통	.140	0.14	.689***	10.246
			$R^2=.475, F=104.971^{***}$			
2단계	모-자녀관계	자녀의 자아존중감	1.736	.038	.974***	45.871
			$R^2=.948, F=2104.194^{***}$			
3단계	모-자녀관계 의사소통	자녀의 자아존중감	1.620	.050	.908***	32.363
			.828	.246	.094**	3.363
			$R^2=.952, F=1151.250^{***}$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2단계에서의 베타값($\beta=.974$) 보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3단계에서의 베타값($\beta=.908$)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투입하기 전에 어머니-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어머니-자녀관계와 함께 투입되면서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자녀관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자녀 관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연구모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②



즉,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은 U시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설문지 11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느끼며 자기비하를 하지 않고,

가족 및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과 인기가 있으며, 행복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효숙, 2003; 이진영, 201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주요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지속적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아버지-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개방형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자녀 관계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문제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부모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 관계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는 부모와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의사교환 및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하거나 회피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등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해 나갈 수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반항적인 행동이나 말에 비난보다 이해와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은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

로 형성이 되고,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특히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인 경우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일수록 자녀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미란, 2011; 이숙·최인경, 2003; 정선미,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녀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시현, 2004)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대화하는 태도, 방식, 내용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등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는 김명옥(1996)의 연구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수용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에 따라 높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투입하기 전에 아버지-자녀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아버지-자녀와 함께 투입되면

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자녀 관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지고,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의 관계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의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류원, 2018; 이진영, 2018; 윤은영, 2015; 박경선, 2012)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관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각각으로 살펴보았을 뿐 통합적으로 바라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매개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버지-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독자적인 영향력이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자녀 관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소통을 투입하기 전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 관계가 의사소통이 함께 투입된 후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자녀 관계가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지고,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의 관계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김미숙, 2014; 국길숙·이미숙, 2003; 박인옥·이정화, 2011; 이숙·최인경, 2003; 정선미, 2007)와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종성, 2009; 신동주, 2012; 주말순, 2010)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에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의 태도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할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진용(1990)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의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반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

넷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는 의사소통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매개효과에서 확인했듯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이 함께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나 대화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퇴근 후의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각각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모-자녀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가 쉽게 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다문화가정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곧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학교적응에 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양적인 증가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연령의 자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이 긍정적이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부부, 교사와 학생, 친구 등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정 부모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장효숙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건강가정시민연대(2004). 건강한 가정 위한 용어. 기독교보. 2461호.
- 고병채 (1991). 自我概念, 歸因性向, 知覺된 父母의 養育態度간의 相互關係 및 그 變因들이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영규 (1993). 어머니의 意思疏通水準과 子女의 自我正體感과의 關係.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 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 (2018).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국길숙·이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3, 89-107.
- 권민균·권희경·문혁준·성미영·신유림·안선희·안효진·이경옥·천희영·한유미·한유진·황혜신 (2012). 아동발달. 창지사.
-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2002)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 김기예·이소은 (2005).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35-46.
- 김나예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옥 (1996). 자녀가 知覺한 어머니의 保進的 意思疏通과 자녀의 非合理的 信念의 關係.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혜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4).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우울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노명숙·류경희·유현정·이영호 (2008).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8). 37-54.
- 김은주 (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창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친밀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엄마의 국적이 일본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0). 국제결혼가정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 (2013).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민숙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주 (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원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배경에 대한 자긍심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림 (2015). 한국 거주 고려인 자녀의 언어발달 연구.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0). Circumflex Model과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선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엄정애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한국교원연구. 24(1). 5-29.
- 박미단 (2009). 학령전기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술지 (2010).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최연실 (2009). 가족상담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2538.
- 박시현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2012). 체육활동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옥·이정화 (2011).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21-33.
- 박종성 (2009).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은 (2007). 여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준성·정태연 (2008).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52-153.

- 박현선 (1998). 부모 - 자녀 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93-118.
- 배장오·진서현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421-434.
- 백승미 (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8). <http://www.moj.go.kr>. 출입국통계연보.
- 법제처 (2008). <http://www.moleg.go.kr>. 다문화가족지원법.
- 손혜진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 STST(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설희 (1994). 부모사랑과 자녀 정체감. 충남대학교 출판부.
- 신동주 (2012). 어머니의 원부모 애착표상과 어머니 자아존중감 및 유아 자아존중감의 관계. 幼兒 教育學論集. 16(1). 305-324.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호진 (2019).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지향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및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597-604.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안지현 (2014). 행복한 어머니되기 훈련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http://www.mogef.go.kr>.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염미화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미 (2003). 부모-자녀간의 意思疏通이 아동의 情緒知能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7).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서울 : 국립국어원.
- 유빛나·박경옥·최진영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건강행위 간의 관련성.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1(1). 41-55.
- 윤난호·장성예·이주연 (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2(1). 313-334.
- 윤미애 (2003).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영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향희 (2014).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우관계와 이중문화 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최인경 (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生活科學 研究. 13. 48-58.
-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허만세 (2014).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교사회복지. (27). 253-274.
- 이애옥 (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8).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 (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경·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영애·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장인실·김명희 (2011).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0. 123-146.
- 장해순·강태완 (2005)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정선미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 (199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言語治療研究. 13(3). 33-52.
- 정지영 (2008).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 및 교사의 교육적 갈등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하성·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7-88.
- 정해숙·황정임·전기택·선보영·이솔·전경숙 (201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금옥 (2005). 초등학교 조직의 개방성 수준과 의사소통 수준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신 (2010).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조은정·이혜경 (2007).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4(4). 59-80.
- 주말순 (201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자 (1999).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폭력비행 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611-628.
- 통계청 (2018). <http://www.kostat.go.kr>.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외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한혜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18). <https://www.mois.go.kr>.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홍정미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성동·박은애(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26(4). 123-145.
-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 Relationships. 8. 312-34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550-560.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Galvin, K. and B. Brommel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IL; Scott. Foresman and Co.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Knezevich, S. J. (1962). *Administration of public*. Harper & Brothers.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 144-158.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yers, D. G., Diener, E. (1986).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 J Psychiat* 135:555-56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3rd 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
-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tepney, C. T., Sanchez, D. T., & Handy, P. E. (2015). Perceptions of parents' ethnic identities and the personal ethnic-identity and racial attitudes of biracial adul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1(1). 65-75.
- Thomas, E.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USA.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et al, Eds. and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 연구 참여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 질문지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여러분이 지각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에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가족관계 및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정보와 비밀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 질문에 맞고 틀린 정답은 없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세히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연구과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가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지도교수: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연구자: 박혜진(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 전공)
- 연락처: 010-0000-0000

<연구 참여 및 동의서>

나는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였으므로

1. 내가 제공한 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나는 이 연구 과정 중 자료가 분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연구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_____ 서명 _____ 날짜(년 월 일)

연구자: 박혜진 서명 _____ 날짜(년 월 일)

[부록-2]

■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1. 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의 학년은?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신 나라는?
① 한국 ② 필리핀 ③ 중국 ④ 베트남 ⑤ 일본 ⑥ 캄보디아 ⑦ 기타 ()

4. 나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나라는?
① 한국 ② 필리핀 ③ 중국 ④ 베트남 ⑤ 일본 ⑥ 캄보디아 ⑦ 기타 ()

5. 나의 아버지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6. 나의 어머니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7. 나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① 증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8. 나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① 증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9.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나요?
① 한국어만 ② 한국어 대부분+ 모국어 약간 ③ 한국어+ 모국어 반반
④ 한국어 약간+ 모국어 대부분 ⑤ 모국어로만

10.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나요?
① 한국어만 ② 한국어 대부분+ 모국어 약간 ③ 한국어+ 모국어 반반
④ 한국어 약간+ 모국어 대부분 ⑤ 모국어로만

■ 다음은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가까운 답에 ✓표 해주세요.

연번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에게 내 비밀을 얘기 할 수 있다.	부					
		모					
2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부					
		모					
3	나를 위해 많이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	부					
		모					
4	부모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	부					
		모					
5	부모님은 나를 엄하게 키우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부					
		모					
6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부					
		모					
7	부모님은 나에게 험신적이다.	부					
		모					
8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부					
		모					
9	부모님은 내 어리광을 잘 받아줘서 편안하다.	부					
		모					
10	부모님에게 잘 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부					
		모					
11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부					
		모					
12	나를 위해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 미안하고 안쓰럽다.	부					
		모					
13	부모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	부					
		모					
14	부모님은 권위적이어서 대하기 어렵다.	부					
		모					
15	내가 힘들거나 짜증이 날 때 부모님은 잘 보듬어준다.	부					
		모					
16	나를 위해 부모님은 희생한다.	부					
		모					
17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부모님은 많은 영향을 준다.	부					
		모					
18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은 무시된다.	부					
		모					
19	나의 사소한 것도 부모님은 자상하게 챙겨준다.	부					
		모					
20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긴다.	부					
		모					

■ 다음은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가까운 답에 ✓표 해주세요.

연번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주저함 없이 이야기한다.					
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나는 때때로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5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곤 한다.					
6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					
7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매우 만족스럽다.					
8	나는 나에게 문제가 (걱정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한다.					
9	나는 부모님께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부모님과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자주 침묵을 지킨다.					
11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12	나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다.					
1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4	부모님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5	나에게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가 있다.					
16	나는 부모님과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7	나는 부모님께 나의 모든 솔직한 느낌을 잘 표현한다.					
18	부모님은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나에게 모욕감(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을 주신다.					
20	나는 부모님께 무슨 일에 대한 나의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가까운 답에 ✓표 해주세요.

연번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elf-esteem in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Park Hyeji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essor Jung Minja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variables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in the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present the necessity of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in the formation of the children's high self-esteem,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form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us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cale', 'the child's self-esteem scale' and 'the communication type scale' with 118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who were residing in U. City. With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6.0 statistical softwar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verifi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in the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higher the scor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higher the children's self-esteem became. In other words, the bette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more positive the formation of the children's self-esteem becomes.

Second, as a result of an analysis, di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into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the better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more open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becomes, and the lower the scor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more problematic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becomes. In other words, if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is good, the children exchange accurate messages not contradicting with parents and make functional communication in which they do not feel suppression in their interaction with parents and freely express facts and emotions.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nd self-esteem in the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s a result, it is interpreted that, when open communication is made with multicultural family parents, in which the children do not feel suppression and can express their opinion clearly out of free emotions,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elf-esteem is positively formed, and if their interaction is negative in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or if they make problematic communication, which is not smooth,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elf-esteem is low.

Fourth, it turned out that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communicat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in the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it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t is found that the better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more open the communication becomes, and that

the open communication can form positive self-esteem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other words,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ffects communication and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elf-esteem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ommunication.

Like th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ath of the impact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on self-esteem in the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e impact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on self-esteem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this study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found that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ffects communication and that it found out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s it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elf-esteem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ommuni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